

아파도 병원 못 가는 여성비율 광주 최고 수준

<13.5%>

광주여성재단 성인지 통계 분석

남성 보다 여성 미치료율 높아
“지역 의료보장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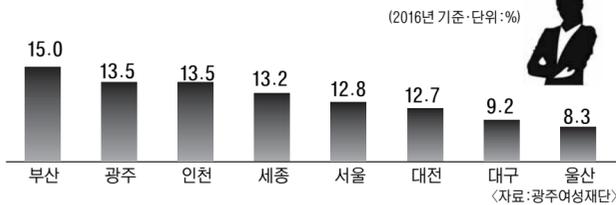
광주 여성들의 ‘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이 8대 광역시 중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부산, 서울, 세종에 이어 네 번째였다.

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은 받고 싶은 의료서비스가 있음에도 치료를 받지 못한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다. 미치료율이 높은 광주지역 여성들은 건강 이상을 느끼지만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15일 광주여성재단의 ‘2017 광주성인지 통계’ 건강부문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광

■ 지역별 필요 의료서비스 여성 미치료율



주 여성의 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은 8대 광역시 평균 12.2%에 못 미치는 13.5%였으며, 부산 15% 다음으로 높았다.

성별 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을 살펴보면 여성은 13.5%, 남성은 9.3%로 여성이 4.2% P 높게 나타났다.

광주 남성(9.5%)은 부산 12.3%, 서울 10.1%, 세종 10%에 이어 네 번째로 조사

됐다.

남녀를 통틀어 자치구별 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의 경우 북구가 13.3%로 가장 높았고, 동구와 서구가 13.2%, 광산구 9.7%, 남구 7.6% 순이었다.

여성과 남성의 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1년 15.5%에서 2016년 11.4%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2011년 13.4%에서 2013년 14.2%로 증가했다가 2016년 9.3%로 감소했다. 여성은 2011년 17.5%를 기록한 이후 2016년 13.5%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전국 두 번째로 높았다.

광주여성재단은 이와 관련, “비용부담 등 당사자의 경제적 이유와 의료기관 개방 시간, 의료기관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했음에도 여성들의 미치료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지역의 의료보장 확대 및 양질의 의료인프라 확충, 방문의료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적소에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여성재단은 ‘2017 광주성인지 통계’의 통계표 등을 매일 발표하고 있다. /전문재·김한영기자 e|6621@



월산4동 주민과 사랑봉사단 회원들이 지난 13일 광주시 남구 월산4동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취약계층 이웃의 방충망 수리작업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 남구 제공>

이웃집 수리공 된 광주 월산4동 주민들

광주 남구의 월산4동 주민들이 비가 내리는 등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과 홀로 사는 노인 등 취약계층 이웃을 위해 재능기부를 통한 방충망 교체가 이뤄졌다.

15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13일 월산4동 관내 통장 25명과 월산동 주민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봉사활동을 했다. 이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취약계층 주민들의 집에 직접 찾아가 노후화된 방충망을 교체하거나 간단한 수리가 필요한 창문 틀 및 장판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남구 주민과 사랑봉사단 소속 회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은 이날 재능기부로 장애인과 노약자, 저소득 가정 등

의 생활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날 이웃사랑 실천활동에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장성환 사랑봉사단장은 “장애인이나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거동 불편 등의 문제로 인해 비교적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충망이나 장판 교체 등의 작업도 버거워 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월산4동행정복지센터와 동북치호민관협의체는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로 구성된 ‘수박동 호민관 생활기동대’를 운영해 따뜻한 복지공동체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 북구 ‘동 복지허브화’

맞춤형 복지팀 17개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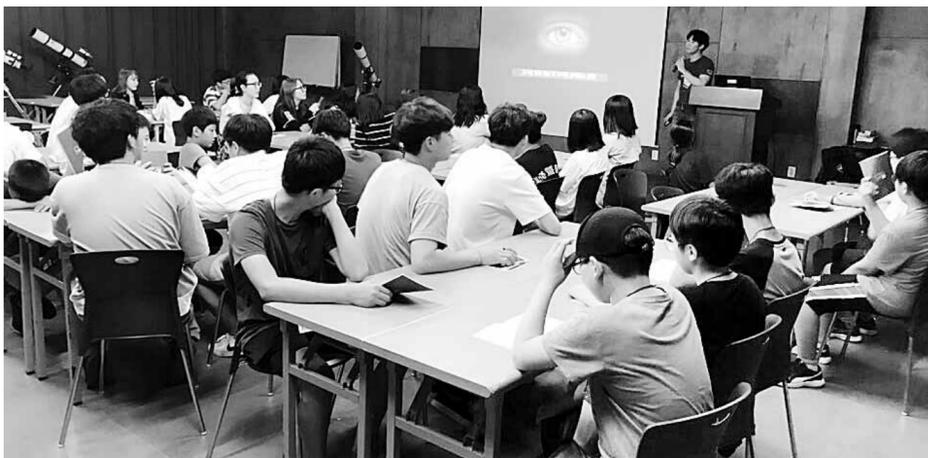
광주시 북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동 복지허브화’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동주민센터가 지역 복지행정의 중심이 되어 갈수록 늘어나고 유형도 다양해지는 주민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주민의 복지서비스 체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업이다.

북구는 동별로 설치하는 맞춤형 복지팀을 기존의 6개에서 17개로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증원 배치해 직접 찾아가는 복지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통합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복지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 ▲통합사례관리 등 주민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

또 월 2회 이상 경로당, 복지관, 관내 병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직접 찾아가는 순회방문 현장상담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상황에 따라 고용, 주거, 교육, 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할 계획이다.

오는 21일부터 27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지역 복지지원 발굴을 통한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 방문교육을 실시해 더욱 촘촘한 맞춤형 복지행정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



지난 9일 경기도 양주시 ‘송암스페이스센터’에서 열린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캠프에서 어린이 참가자들이 ‘태양계수업’을 듣고 있다.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제공>

천문대 오른 위탁 아이들 “별 보며 꿈 키워요”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캠프

올해 중학교 3학년인 명원(가명)군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생활했다. 현재 할머니 집에 살고 있는 명원은 천문학과 교수가 되고 싶은 꿈이 있다. 하지만,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과학 캠프나 문화체험활동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다.

명원군은 최근 천문관측과 우주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문정훈·센터가 위탁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립캠프 대상에 뽑혔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은 천부모가 특정한 사유로

자녀를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없을 때,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 아동을 보호·양육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위탁아동 중 명원군 처럼 천문학 체험을 원하는 청소년 총 31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 양주에 있는 송암스페이스센터에서 자립캠프를 열었다. 캠프에 참여한 어린이, 청소년들은 ▲천체 망원경을 이용한 천문관람 ▲별자리 만들기 ▲태양계 수업 ▲로봇 쇼 등을 접했다.

이들간의 단체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타인을 배려하는 등 사회성을 기르는 법 등

을 배웠다. 이 과정은 위탁 아이들이 추후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로,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는 게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명이다.

캠프에 참석한 한 아이는 “천문대에 올라가 누워서 별을 봤던 것과 별고리 만들기 가 가장 재미있었다. 이런 과학캠프는 항상 즐겁지만 할머니랑 단둘이 사는 나는 이런 곳에 오기가 쉽지 않다”면서 “천문학은 공부할수록 빠져들고, 헤어 나올 수 없는 것 같다. 이 광활한 우주에서 작은 한 인간으로서 우주를 바라보는 것은 정말로 신비로운 일이다” 라고 참가 후기를 적었다.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아이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중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시각장애인·어르신 위해 구 소식 읽어드립니다”

광주 서구, 음성파일 소식지 발행

시각장애인과 노인 등 글을 읽기 어려운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 소리로 듣는 서구 소식지가 나왔다.

광주시 서구는 “시각장애인과 고령자, 이중 외국인 등 글을 읽기 어려운 정보 소외계층의 편의를 위해 소식지를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오피서구소식’ 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전에 발행된 소리로 듣는 소식지는 서구에서 발행하는 ‘오피서구소식’을 대본으로 만든 뒤 녹음해 음성파일로 지원하는 소식지 낭독서비스다. 소식지 녹음은 구청 내 서구 음악방송(GSB) 스튜디오에서 진행했으며 기계를 아닌 사람의 안정된 목소리로 녹음해 정보 전달력을 높였다. 주민들이 소식지를 들을 때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20분 내외로 재생 시간을 줄였으며 각 기사마다 다채로운 배경음악과 효과음을 넣어 집중도를 높

였다. 서구 홈페이지의 서구 소식란에 들어가 ‘오피서구소식’ 8월호 음성파일을 클릭하면 소식지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음성지원뿐만 아니라 QR 코드를 활용해 스마트폰에서 소식지를 접할 수 있다. 특히 자원봉사자가 재능기부로 매일 직접 원고를 낭독하고 주민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서구 소식지에 대한 참여자 질문은 서구청 홍보실(062-360-758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구는 ‘오피서구소식’을 매일 16면 8만5000부를 발행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오피서구소식’은 의정소식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이야기와 각종 생활정보 등을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큰 반응을 얻고 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대형토지

- 빛그린산업단지 인근
- 문장공용터미널 근접
- 대로 및 중로 3면 도로접
- 개발가능 생산녹지 5,000평
- 가격 : 저렴하게 협의

H. 010-5236-7458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Step 1. 방수경리
Step 2. 단열바이스카트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린다고요?
20년은 가는데!!!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2/ 건축 내외장재 패던디자인이 잔 엔디나와의 클라보 디자인!
3/ 외벽에 옷 입히듯 마감함으로써 건물을 헛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2중외벽 단열방수 방수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함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